



## 무종교인 10명 중 4명, '신' 또는 '초월적 존재' 믿어

목데연, 18일 포럼 열고 무종교인 1천명 대상 조사 결과 발표

무종교인 10명 중 4명(38%)은 '신' 또는 '초월적 존재'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무종교인의 종교 의식'이라는 목회데이터포럼을 개최한 목데연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종교사회학)와 함께 기독교 조사 전문기관인 ㈜지앤컴퍼니에 의뢰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현재 종교를 믿지 않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무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목데연은 "무종교인은 과연 종교와 무관할까? 본 조사는 무종교인의 종교적 특성을 양적 조사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신 혹은 초월적 존재' 믿는 비율 38.3%  
조사 결과 신 혹은 초월적 존재를 믿는지에 대한 질문에 33.7%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초월적인 힘은 존재한다고 응답했고, 26.1%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초월적인 힘도 없다고 응답했다. 이 두 응답을 합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비율은 59.8%였다.

한편 '신의 존재를 믿는다'(4.6%)는 응답과 '초월적인 힘이 존재한다'(33.7%)는 응답을 합한 비율, 즉 '신 혹은 초월적 존재'를 믿는 비율은 38.3%였다. 목데연은 "무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신을 포함한 초월적인 힘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무종교인들 중 37.0%는 '영혼이 있다고', 33.1%는 '영혼은 없다고' 각각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29.9%였다.

◆종교의 유익, '위안·위로' 가장 많이 꼽혀  
종교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종교인의 56.9%가 '필요하다'(약간+매우)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는 4.7%였는데 이에 대해 목데연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지만 그 강도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종교가 주는 유익으로는 '위안과 위



정재영 교수가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로(76.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내적 평화와 행복'(72.7%),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힘'(66.1%), '삶의 의미에 대한 해답'(34.1%), '내세의 영생, 해탈 추구'(27.2%), '건강, 취업 등 목표 성취'(17.4%) 순이었다.

목데연은 "이 결과를 분석하면 무종교인들은 종교를 '내적 평안을 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인식하는 반면 '궁극적 가치를 주는 역할로는 보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사주, 인생에 영향 미쳐' 47.2% 동의  
'사주가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한 비율은 47.2%였다. 이 밖에 동의율은 '부적은 때때로 행운을 가져다 준다' 28.9%, '점쟁이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26.6%, '태어난 해의 별자리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23.7%, '심리치료사들은 신에게 부여받은 치료의 능력을 갖고 있다' 15.5%였다.

'최근 1년 사이 점 등 무속·미신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9.9%는 한

적이 '없다고', 40.1%는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험한 이들의 구체적 사례는 '사주'가 24.0%로 가장 많았고, '토정비결'(15.8%), '타로점'(14.6%) 등의 순이었다. 경험한 이유로는 '재미로'(57.4%)와 '신년 운세'(51.9%)를 주로 응답했다.

◆'명상·마음수련 등 해본 적 있다' 29.4%  
종교적 혹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명상 또는 마음 수련 등의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0.6%였고 '해본 적 있다'가 29.4%였다. 구체적으로 '명상 또는 마음 수련'(18.5%)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요가'(7.5%), '기도'(5.7%), '기공'(2.4%) 등의 순이었다.

◆'무종교인의 종교성, 영적 차원에 대한 관심'  
이날 목회데이터포럼에서 발표한 정재영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의 시사점에 대해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종교인들이 모두 종교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종교성이 기존 종교나 제도 종교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영적

인 차원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종교인이 관심 갖는 종교성은 본질적인 종교성이라기보다는 비본질적인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종교성의 특징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에 대한 이해나 관심의 차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서양의 종교관은 종교를 그 자체 목적으로 보는 데 비해, 동양의 종교관은 종교를 인생의 자아 완성과 지상 천국의 도구로 접근하는 공리적 접근 태도를 띤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한국의 무종교인들은 본질적인 종교보다는 종교를 통한 심리적 평안을 추구하는 경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영성에 대한 이들의 관심 자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이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것이 영적인 차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무종교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제2의 목회 인생”... 김장환 목사가 20년간 1천 회 진행한 방송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19일 1천회 특집 생방송

극동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5년 1월 28일 첫 방송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가 19일 1천 회를 맞았다. 지난 약 20년 동안 단 한 주도 결방 없이 주 1회,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전파를 타고 전국의 청취자들을 만났다.

그 사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90)는 '국내 최고령 라디오 진행자'가 됐다. 매주 각계각층의 기독교인들을 초대해 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 듣는 이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김장환 목사의 위트 있고 깊이 있는 진행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까지 약 1,100명이 게스트로 참여했다.故 조용가하음조 목사 등 목회자들부터 비평가 김경삼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배우 김해자-한혜진 씨 등 연예인, 이영표-김원희 축구선수, 최경주 프로골퍼 등 스포츠 선수들이

함께했고, 일반 청취자들도 게스트로 이 프로그램을 밟았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1천 회 특집은 평소와 같이 김장환 목사와 최혜심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방송인 김원희 집사와 유명한 전 외교장관, 안호영 예비역 육군 대장(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이 게스트로 참여해 방송의 1천 회를 축하했다.

김원희 집사는 "지치고 힘들 때 극동방송을 들으면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제 영이 살아남을 느낀다"며 "극동방송을 들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많이 청취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생방송이 진행된 서울 극동방송에도 1천 회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 중에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 참석했다는 이도 있었다. 이 밖에 많은 청취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는 방송, 축하드립니다" "김장환 목사님, 앞으로 1,500회 2,000회까지 진행해 주세요" 등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1천회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장환 목사 ©극동방송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특히 첫 회 출연자였던 배우 임동진 목사가 전화 연결을 통해 1천 회를 축하하기도 했다.

김장환 목사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에 대해 "내게는 '제2의 목회 인생'이었다"며 "대통령을 지낸 사람부터 유명 연예인, 택

시 기사와 이발사, 환경미화원까지 그야말로 천장에서 바닥까지 두루 만났다"고 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더라. 아무리 높고 부유한 사람이라도 외로움이 있더라. 그들의 애환을 들으며 정말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위안을 받기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1천회 특집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극동방송

도 한다"며 "이웃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게스트를 외부에서 초청할 수 없어 김 목사는 극동방송 직원들을 스튜디오로 불렀다고 한다. 목회자 사모인 직원들, 경비 직원, 식당 직원 등을 불러서 그들의 삶과 애환을

들었다고.

김 목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게는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1천 회 특집 생방송을 마치면서도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서울-동탄 GTX-A 개통완료!」

**동탄, GTX로 감탄하다!**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오피스텔**

**GTX-A**

개통완료

(수서-동탄 구간)

**선남숲**

영구조망

(일부호실 제외)

**선착순 특별혜택**

1833-3008

hillstate-le-centum.co.kr | KB부동산 | pine grove | 현대엔지니어링

HILLSTATE